



교리학당

Academy for Reformed Doctrine & History



고 신 대 학 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Kosin University



고신레포 500

교리학당

Academy for Reformed Doctrine & History

발행일 _ 2016년 10월 28일

발행인 _ 전광식

편집인 _ 이신열

펴낸곳 _ 고신대학교 출판부

고신레포 500

개혁주의학술원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Tel. 051) 990-2267

www.kirs.kr

kirs@kosin.ac.kr

교리학당

Academy for Reformed Doctrine & History



고 신 대 학 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Kosin University



교신레포 500
2018년 10월 10일



『교리학당』을 펴내며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이번에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위원회(고신 레포 500)와 저희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이 공동으로 ‘교리학당’을 개설하면서 이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의 수도승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부르크(Wittenburg) 성당 문에 95개 조항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the Reformation)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전 유럽과 온 세상에 새로운 사고를 가져온 혁명적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온갖 도덕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교리적 왜곡으로 인해 병들었던 교회를 개혁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스위스의 취리히(Zürich)의 사제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가 1518년 1월 1일부터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강해하는 설교를 시행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의 복음주의적 사고에 동의하고 로마 가톨릭교회가 지닌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고 전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귀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음 세대 인물인 프랑스의 인문주의자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는 널리 알려진 개신교 입문서 『기독교강요』의 저자로서 스위스 제네바를 신정정치에 기초한 거룩한 도시로 형성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신교회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모든 장로교가 추구하는 개혁주의는 칼빈에게 교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sola scriptura)의 종교개혁적 정신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대원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교리학당은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고신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되짚어 보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신천지를 비롯한 다양한 이단들의 활동에 의해서 평신도들이 교리적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리학당이 개혁신앙의 토대를 든든하게 세우며 교회가 종교개혁의 숭고한 정신 위에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축복을 내려 주셔서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전진하고 성장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려 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서 옥고를 작성해주신 이상규(고신대학교), 임경근(다우리교회), 황대우(진주 북부교회), 이성호(고려신학대학원), 우병훈(고신대학교) 박사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신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의 재정적 지원과 고신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의 교회가 성장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2016년 10월 6일
고신대학교 영도 캠퍼스에서
개혁주의학술원장 이 신 열

Contents

| 교 리 |

- 초대교회 기독교교리 형성과 이단 10
황 대 우(고신대학교, 종교개혁사)
- 신조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신조교육 48
우 병 훈(고신대학교, 교의학)
- 다양한 교파들의 교회론 66
: 로마 가톨릭교회,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침례교회와 감리교회
이 신 열(고신대학교, 교의학)
- 도르트회의와 칼빈주의 5대교리 94
이 신 열(고신대학교, 교의학)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둘러보기 130
이 성 호(고려신학대학원, 교회사)
-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160
우 병 훈(고신대학교, 교의학)



| 역 사 |

- 초대 교회 신자들의 삶과 그 교훈 190
우 병 훈(고신대학교, 교의학)
- 종교개혁사 209
황 대 우(고신대학교, 종교개혁사)
- 칼빈과 제네바종교개혁 252
황 대 우(고신대학교, 종교개혁사)
- 장로교회의 역사 : 스코틀랜드와 미국을 중심으로 293
이 성 호(고려신학대학원, 교회사)
- 네덜란드 교회 역사 326
임 경 근(용인 다우리교회 담임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외래교수)
- 고신교회의 형성 375
이 상 규(고신대학교, 교회사)



1부 교 리

초대교회 기독교교리 형성과 이단

황 대 우 (고신대학교, 종교개혁사)

1. 서론 : 기독교 교리와 이단들

이단(Heresy = ἑρέσις)이란 무엇인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특별한 집단 즉 당파’를 가리키는 중성적 의미로 사용했다. 예컨대, 사두개인의 당파(행 5:17), 바리새파(행 15:5), 나사렛 이단(행 24:5)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행 24:14), “이 파에 대하여는”(행 28:22) 등의 용례가 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기독교도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어떤 대상을 위해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편당”(고전 11:19), “이단”(갈 5:20) 등이다. 또한 바울은 이 단어를 기독교 교리를 오도하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딤후 3:10),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등이다.

초대교회의 교부들 가운데 기독교 이단에 대표적인 저술은 이레네우스의 『이단논박』(*Adversus haereses*)과 테르툴리아누스의 『프락세아누스 논박』(*Adversus Praxeas*)을 꼽을 수 있다. 이레네우스는 이단을 “겉으로는 교회의 교인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기꾼이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정의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교회가 세상적인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세속화되고 기독교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이단 현상이라고 보았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로는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리의 형성과 연관된 기독교 이단들을 살펴볼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 이단의 발생으로 인해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형성된 교리는 크게 5가지 즉 삼위일체, 기독교론, 계시론, 교회론, 구원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다섯 가지 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이단과 관계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하나님은 누구신가? : 삼위일체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신6:4-5)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뿐인 신, 즉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다.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시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자칭 ‘인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하늘 아버지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고 선포하심으로써 한 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셨고, 또한 자신이 보내실 다른 보혜사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하심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곧 삼위 일체 교리다.

1. 단일신론

일체 즉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할 경우 군주신론(Monarchianism, 단일신론)으로 빠지기 쉽다. 군주신론이란 ‘한 사람의 지배’를 의미하는 ‘모나키아’(monarch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신임을 주장하는 초대 교회에 나타난 삼위일체 이단 가운데 하나다. 군주신론은 역동적 군주신론(Dynamic Monarchianism)과 양태적 군주신론(Modalistic Monarchianism)으로 구분된다.

역동적 군주신론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양자론(Adoptionism)이나 유출설(Emanationism)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양자론이란 성자가 성부의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인간이라는 주장인데, 그리스도를 오직 ‘사람의 아들’로만 간주한 에비온파(Ebionites)와 깊은 연관이 있다. 유출설이란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의 영향을 받아 성자가 성부로부터 유출된 것이므로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이론이다. 양자론이든 유출설이든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러한 역동적 군주신론의 대표 자로는 3세기에 활동했던 로마의 테오도투스(Theodotus of Rome)와 사모사타의 바울(Paul of Samosata)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동적 군주신론은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주장한 아리우스(Arius) 이단과도 상통한다.

양태적 군주신론은 삼위가 신적 현현의 세 가지 방식(*tres modi*)이라는 주장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대표자는 3세기 신학자 사벨리우스(Sabellius)이다. 여기서 삼위일체 이단인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라는 용어가 파생했다. 사벨리우스는 주장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하다. 이들은 세 가지 명칭이지만, 그 명칭이 가리키는 실재는 하나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세 하나님을 가지는 것인가?”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성부를 태양에, 성자를 광선에, 성령을 가열능력과 같은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양태론이다. 그는 경륜(*οἰκονομία*) 개념을 도입하여 삼위일체를 역사적인 것으로 해석했으며, 또한 삼위일체를 신의 경륜 또는 신의 계획이란 뜻에서 ‘경륜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양태론인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의 가장 심각한 교리적 문제는 십자가에게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성부라는 성부수난설(*patripassionism*)이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부라는 주장이다.

2. 삼신론(성부, 성자, 성령) 혹은 사신론(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각 독립된 세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삼신론이며, 이 세 분이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신론이다. 즉 사신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과 또한 삼위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각각 계신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서 개체를 중시하는 중세의 유명론적 사고 경향은 삼위일체론을 삼신론이나 사신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3.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 역사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논쟁을 흔히 ‘이오타’ 논쟁이라고 부른다. 이유는 논쟁의 핵심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 동일한지 아닌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 동일본질을 의미하는 ‘호모우시오스’(ὁμοούσιος)인가 유사본질을 의미하는 ‘호모이우시우스’(ὁμοιούσιος)인가의 문제였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헬라어 철자 ‘이오타’(ι) 하나였던 것이다. 물론 그 논쟁이 이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논쟁의 핵심 내용을 성자가 성부와 동일본질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유사본질의 하나님이신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주장과 달리 성부와 성자의 신성이 서로 다르다는 “상이본질”(ἑτερόμοιος)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

가. 아리우스 이전의 서방교회 삼위일체론

2세기 말 리옹(Lyon)의 감독이었던 이레네우스(Irenaeus)의 삼위

일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오이코노미아’(οἰκονομία)라는 개념, 즉 구원의 경륜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신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로고스’를 창조 사역 이전부터 성자와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이레네우스는 성부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성자를 만물을 관통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만물 안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했는데, 이것은 마치 그가 삼위의 관계를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전하게 정의하기도 했다. “창조되지 않은 성부 하나님, 제약되지 않으며 불가시적인 한 분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차서 만물을 자신에게 회복시키고자 인간 사이에 한 사람이 되었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교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 면전의 세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 인간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부여된 성령...”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 즉 성부의 지식은 성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성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부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성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자가 섬기고 성령을 나누어주신다.”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하여 이레네우스 다음으로는, 3세기 서방 교회에서 활동한 ‘라틴 신학의 아버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터툴리안)의 견해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삼위 혹은 삼위일체로 이해되는 용어인 ‘트리니타스’(trinitas,